

# “건축신문”발간의 당위성과 방향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Architecture Newspaper

金奎泰/본 협회 이사, 신문발간위원회 위원장

by Kim, Kyu-Tae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수년 전에 울곡 이이 선생은 섬나라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군사를 모집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 건의를 접한 조정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명의 정보원을 일본에 보내 정세를 살펴보게 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적정을 분석한 후 귀국한 두 정보원의 정세분석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한 사람은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이 내부의 혼란상황으로 인해 난국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범할 역량도, 의사도 없다고 보고했다.

두 정보원의 서로 판이한 보고를 접한 조정은 후자의 보고를 근거로 양병설을 무시해 버렸다. 수년 후 일본은 자국의 혼란으로 인한 민심 수습방안을 이웃나라를 침략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조선을 침략했다. 이 결과 조선은 일본군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는 대전란을 무방비 상황에서 맞게 됐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 두 정보원이 10만양병설 당위론을 함께 인식하여 보고했다면, 아니 두 정보원의 판이한 정세 보고를 접한 조정이 전자의 정보에 가치를 두어 10만양병설을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임진왜란이란 말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민족의 운명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임진년이 후세 사가들에 의해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란의 역사적 교훈은 정보의 가치와 정보분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의미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울곡 이이선생의 이 글귀를 다시금 크게 느끼게 한다.

“백성의 말길(言路)이 막힐 때 나라는 망하나니 그것은 하루도 막을 수 없다. 온 백성이 다 옳다고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國是이다.”

신문발간에 즈음하여 이처럼 장황한 서설을 논하는 이유는 향후 창간될 협회 신문이 언론 본래의 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창간의 의미를 곱새겨 보자는 생각에서이다.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필연적 과정이며, 유형·무형의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조직의

자기변신은 역시 당연한 이치이다. UR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올해부터 외국업체에 문호를 개방한다. 1월부터 일반기업이 빗장을 푸는 것을 필두로 96년부터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 계약의 경우 개방이 허용되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국제 경쟁도 치열했지만 그동안 우리 서비스 분야는 보호장벽이 쳐져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경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변화를 가능케 했던 힘은 바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정보를 생산, 가공, 공급하는 정보통신을 갖추지 못해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대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정보통신 바로 언론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 볼 때 우리 건축계도 외형적으로는 거대조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외형성장에 가리워진 많은 내적문제를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대가 변했고, 주변환경이 변해가고 있듯이 이제는 건축계도 변해야 한다. 건축계내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사고의 팽배, 외부에 대한 조직적 힘의 결여, 부당한 피해의식 등을 공개된 장으로 끌어내어 건설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건축의 미래상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여기서 신문발간의 일차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기존 월간 건축사지가 일정정도 회원의 대변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주위, 주장을 펴기에 미흡한 Document(자료)성 역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격변기 국내, 외에서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압력에 맞서 5천여 건축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여론을 이끌어 갈 Opinion leader(여론 선도자)로서 건축신문발간의 의의는 상당히 크리라 본다.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공간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수요자는 정보의 다양성과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른 기술적 기능성의 증가는 사회의 분업화, 전문화를 가속화 시켜 전문적인 정보의 필요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문은 획일적이고, 규범적인 기존의 신문패턴과는 다른 형태, 즉 개별적이며 선별적인 정보의 제공을 가능케

고도정보화시대의 언론기능은 정보의 홍수현상속에서 인간의 사회활동에 유효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 정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흐를 수록 이를 공급하는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볼 때 현대사회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신문은 인간의 혈관구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생겨 생명을 위협하듯이 조직의 개별 의견이 조직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제한 받는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에 다를 바없다.

하는 전문지 형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창간될 건축사 신문은 회원의 개별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 욕구를 건전하게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발간을 실무에서 준비하고 있는 필자는 창간될 건축신문이 건축계의 다소 폐쇄적인 기존의 논의 구조를 공개된 장으로 끌어내어 건축계 발전과 건축인의 단합을 위한 촉매적 역할을 다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신문발간에 임하고 있다.

먼저 건축 신문은 건축사뿐 아니라 나아가 건축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끝은 소리를 내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이른바 “正論”을 펼쳐야 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건축인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끝은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아가 건축계 뿐만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취재영역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신문의 모든 지면은 주의, 주장의 차이에 상관없이 전 건축인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건전하고 건설적인 정보 공유의 열린 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건축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보고의 전문신문이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문 정보지를 지향하는 협회신문은 회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언론인의 직업윤리로 분석되고 걸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건축사는 물론 건축계가 지향하는 바를 대내·외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대변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 이기를 실현하기 위한 맹목적 대변기능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건축사 및 건축종사자의 사회 기여도를 대외에 바르게 인식시키는 참 의미의 대변기능을 다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신문발간의 정신에 기초하여 건축사 신문이 진정 전 건축인의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향, 다시말해 보도방향(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건축사협회를 정점으로 전 건축계가 상하 논의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도방향(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조형 창작 예술인으로서 건축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건축정보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사가 성실히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는 생활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넷째,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건축인이 서로 결속하여 건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촉매적 언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건축사의 올바른 위상을 알리는 홍보언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고도정보화시대의 언론기능은 정보의 홍수현상 속에서 인간의 사회활동에 유효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 정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흐를 수록 이를 공급하는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볼 때 현대사회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신문은 인간의 혈관구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생겨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조직의 개별 의견이 조직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제한받는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에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신문발간에 즈음한 전 건축인의 절실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신문발간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연초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신문발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더 좋은 결실을 위한 작은 아픔으로 안위하며 건축사협회 창립 30여년 만에 갖게되는 신문이 진정한 건축언론으로 탄생하여 건축계를 결속하고 나아가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듬고, 다듬어 나갔으면하는 마음이다.